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6. (화)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승자 없는 107일 전쟁, 전세계 상처만 남겼다	국제	톱
2	피상으로 뜯고, 코인으로 세탁... 캄보디아 조직원 무더기 검거	사회	
3	홍물 된 창원 344억 '빅트리'... 결국 경찰 수사받는 신세	사회	

(1)기사/뉴스요약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열고 적대 행위를 중단한 뒤 60일간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등을 둘러싼 최종 협상에 착수한다.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서명과 함께 다시 열릴 예정이다. 107일간 이어진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란은 모두 '승자'임을 주장하지만, 양쪽 모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오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종전 양해각서 체결 합의 사실을 알리면서 "미 해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 세계의 선박들이여,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했다. 카뎀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국영 TV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및 군사작전 종료가 시작될 것"이라며 "적은 모든 목표에서 패배했고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AFP 등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주 카타르 도하에서 예비접촉을 갖고 이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과 실무회담을 갖는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분명히 (서명식에) 참석할 계획"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기본 틀에 가깝다. 미국과 이란은 서명 이후 60일 동안 최종 종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본협상에 들어간다.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동결자금 처리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인 14일 종전 발표가 이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지 시각 자정이 넘을 때까지 최종 합의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시각으로는 15일 새벽, 미국 동부 시각으로는 14일 저녁 발표가 이뤄지면서 양측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날짜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전쟁은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미국·이란 양측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을 통해 이란의 '핵시계'를 뒤로 돌리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인 고농축우라늄(HEU) 폐기 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게다가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호르무즈 해협 전략무기화'를 현실화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 경제에 장기적인 타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나올 어떤 합의도 우리가 (2015년) 처음 체결한 핵 합의보다 크게 나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세스 몰던 의원은 "전쟁 이전에 열려 있던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합의를 한다니 어떻게 그게 승리가 될 수 있나"라고 했다.

이란은 100일 이상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공세를 버텨냄으로써 반미 진영 내 존재감과 위상을 확인했다고 자평할 수 있지만, 자국내 주요 인프라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안보수장 알리 라리자니 등 수뇌부 상당수를 잃은 것도 타격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막아선 것은 장기적으로 이란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가 트럼프가 전쟁 초기에 내세웠던 목표들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요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 고농축우라늄 폐기 등은 여전히 불확실 상태이며 이란은 자국내 주요 인프라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등 양쪽 모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기사/뉴스요약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로맨스 스캠(연애를 가장한 사기) 등 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환전하는 데 가담한 일당 23명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하고 이들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당의 범죄수익금 6억5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달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피싱 조직 총책 A(29)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 조직원 B(45)씨 등 9명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캄보디아 거점 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140억원가량을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불법 환전했다. 자금 세탁에 동원된 계좌 1만1300여 개에선 피싱 피해 265건이 확인됐다. 이들이 세탁한 범죄수익금은 총책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 또 다른 피싱 범죄 미끼 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실제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원으로 활동하기까지 한 경우도 있다. C씨 등 한국 국적 조직원 14명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로맨스스캠을 통해 벌어들인 28억원을 세탁해 후이원페이 등 해외 거래소로 보냈다. 이 자금 역시 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됐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 79명으로부터 총 44억원을 뜯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가상자산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과 지인 등에게 불법 환전해 준 미등록 환전상 33명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원화로 환전해 주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요점: 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환전하는 데 가담한 일당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되었고 이들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3)기사/뉴스요약

싱가포르의 명소를 참고했다는 애초 조감도와는 크게 다른 외관으로 논란을 빚은 경남 창원시 도심 ‘빅트리(Big Tree)’와 관련해 창원시가 감사를 벌여 담당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하고, 민간 사업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공원 시설인 빅트리 추진 과정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빅트리 공개 후 “조감도와 판판이고, 흉물 같다”는 시민 비판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절차 이행 실태와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했다.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들이 빅트리 디자인 최종 변경 과정에서 감리자와 민간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식 검토·보고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자세히 확인·검토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4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조치를 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뢰했다.

창원시는 사업비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 판단을 구했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투입 내역에 대해선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 최종 사업비의 적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애초 조감도 등 계획과 다른 외관으로 조성됐음에도 수백억 원이 투입된 점을 들어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빅트리 조성 사업비는 약 344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향후 수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감사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빅트리는 성산구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전체 사업 면적 95만7000여 ㎡ 가운데 87.3%를 빅트리와 맘스프리존 등 공원 시설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7% 부지에 1779가구 규모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건립해 이익을 얻는 구조다.

빅트리는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에 있는 ‘수퍼 트리’를 참고해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의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착공 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자연재해 취약성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설계가 변경됐고, 결국 상부 메인 조형물 등도 제외되거나 바뀌었다.

이후 구조물이 공개되자 혹평이 쏟아졌다. ‘조감도와 너무 다르다’ ‘나무가 아니라 굵은 쓰레기통 같다’ ‘흙물이 따로 없다’ ‘탈모트리’ 등의 조롱이 잇따랐다.

요점: 경남 창원시 도심 ‘빅트리(Big Tree)’ 추진 과정에 대해 창원시가 감사를 벌여 담당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하고, 민간 사업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기업개선작업	흔히 부르는 ‘워크아웃’의 정식용어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뜻한다. 기업 스스로 하기 힘든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하게 된다.	시사상식사전
2	외골격 로봇	로봇 팔이나 다리 등을 사람에게 장착해 근력을 높여주는 장치. 로봇을 입는다는 의미로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이라고도 함.	시사상식사전
3	미토스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인 앤스로픽이 2026년 4월 공개한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로, 모든 주요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에서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하고 수십 년 된 버그까지 찾아내는 성과를 보이면서 논쟁을 일으켰다.	시사상식사전